

**2024년도 장성군의회
이탈리아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2024년 10월

장 성 군 의 회

I 연수 개요

○ 대상국가 : 이탈리아

- 로마 → 피렌체(피렌체 농업학교) → 볼로냐(볼로냐 현대미술관, 아케이드) → 밀라노(농산물 도매센터, 시청상하수도국) → 코르티나담페초(돌로미티) → 피렌체(역사지구) → 로마(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성당)

○ 목 적

- 지역전략산업 개발, 도시 인프라 구축, 관광소득 창출 등 선진사례 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신장

○ 기 간 : 2024. 9. 19.(목) ~ 9. 26.(목) / 6박 8일

○ 보고서 작성 : 장성균의회 의원(7명)

○ 인적사항 (의원 7, 직원 3)

구 분	직 위	성 명	비고
의 원	의 장	심 민 섭	
	부 의 장	오 원 석	
	의 원	차 상 현	
	의 원	나 철 원	
	의 원	서 춘 경	
	의 원	김 연 수	
	의 원	최 미 화	
직 원	의회행정팀장	김 애 희	
	의사지원팀장	정 철 균	
	정책지원팀장	신 규 선	

Ⅱ 의원별 연수기

◆ 의 장 심 민 섭	4
◆ 부 의 장 오 원 석	10
◆ 의회운영위원장 차 상 현	14
◆ 행정자치위원장 나 철 원	총괄보고(맨마지막 29)
◆ 산업건설위원장 서 춘 경	18
◆ 의회운영위원회 김 연 수	22
◆ 행정자치위원회 최 미 화	26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심민섭 의장]

■ 들어가는 말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는 관광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협의 끝에 관광 대국인 이탈리아로 정하게 되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국외 연수를 떠나기 전 미리 준비한 방대한 자료를 통해 각 도시별 방문지를 사전에 숙지하여 연수 효과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의원 연수를 다녀온 효과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하는 말이 있다. “콩나물시루론”으로 연수 효과가 바로 나타나면 아주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연수에서 몸소 체험하고 느낀 부분들은 의정 활동을 하는데 새로운 자양분이 될 것이며 이는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혹자는 해외 연수를 갔으면 최대한 많이 배우고 느끼고 부족한 점을 채워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군정에 반영할 발전적인 정책이나 아이디어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와야 하지 않냐고 이야기한다.

본 의원 또한 적극 동감하고 이해하며 의원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짧은 연수 일정, 방문 기관 섭외의 어려움, 도시간 긴 이동 동선, 전문 연수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했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연수기간 동안 보고 느낀점을 적어 보려고 한다.

■ 본 론

이탈리아는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로 현재 6천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는 로마, 밀라노, 피렌체, 볼로냐 등으로 이탈리아를 쓰며 카톨릭이 주된 종교로 문화, 예술, 음악, 요리 등 다양한 문화적 유산으로 유명하며 르네상스 시기에 많은 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이다.

우리나라 인구와 반도라는 부분이 유사하며 산업, 서비스,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며, 특히 패션, 자동차, 음식, 와인 등의 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본 의원은 금번 연수에서 이탈리아에서 보고 느낀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우리군 관광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먼저,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무수히 셀 수 없는 이탈리아의 문화유산에 먼저 입이 딱 벌어진다.

주요 도시마다 특색있는 대성당, 이천년이 넘게 남아 있는 포로 로마노와 콜로세움, 판테온신전, 밀라노 대성당과 바티칸 시국, 오랜 역사와 함께 남아 있는 예술 작품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 정말 부러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문화유산을 지켜내고 현재의 관광대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석조 건축양식, 치밀한 도시계획,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힘, 지방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의지로 나뉘어 보았다.

석조 건축양식, 수천년이 지나도 원형을 간직하는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성당과 건물, 역사 유적, 예술작품들은 우리의 목조 문화와 달리 현재는 물론 후대에까지 이탈리아 먹거리로 온전히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치밀한 도시계획, 피렌체, 로마, 베니스 등 수천년 또는 수백년 전 계획된 도시가 지금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돌덩이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 수백년전 과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예술가들이 걸었던 거리를 현재의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에 이상야릇한 감정이 들곤 했다.

다음으로 문화와 예술을 지키고자 하는 힘에 주목했다.

위대한 인물은 역사를 이끌지만, 위대한 가문은 역사를 만든다는 말을 만들어낸 메디치 가문은 300년에 걸쳐 르네상스 예술에 이바지하였을 뿐 아니라 메디치가의 마지막 후손 안나 마리아는 모든 예술작품과 유물들을 남기면서 단 하나도 피렌체 밖으로 반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여 오늘날 피렌체가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

피렌체 밖으로 유물들을 단 한점도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의지이다.

볼로냐의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는 포르티코(아케이드, 회랑)를 걸으며 상인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허락되었던 건축 양식이 지금은 볼로냐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결한 볼로냐 정부의 일관성(총 길이 62km), 절대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를 끈질기게 만들어 낸 것이다.

피렌체 역사 지구는 어느 한 가구도 함부로 증·개축을 할 수 없다. 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 하지만 피렌체 내 관광수입은 오롯이 피렌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모두가 감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로마도 마찬가지다. 포로로마노, 콜로세움과 판테온 신전이 아무리 석조 건축물이라도 오랫동안 비바람이 침식되고 부서져도 그 자체로 최소한의 복원만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우리는 금방 헐고 다시 새롭게 복원했을 텐데 말이다.

자연 유산을 지켜나가는 것도 대단하게 느껴지기는 매 한가지였다. 파도바에서 이탈리아의 알프스 돌로미티로 가는 길은 좁디 좁은 편도 1차선을 묵묵히 다니는 걸 보면서, 내년에는 동계올림픽도 열리는데, 우리나라였다면 진즉에 4차선 확장에 터널까지 뚫었을텐데....라는 생각은 본 의원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는게 문화 유산과 경관을 지키는 것이란 걸 알기 때문일 것이다.

■ 결 론

이렇듯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건축 문화, 역사 등이 달라 현재의 우리군 문화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느낀대로 적용할 방안을 적어 보려고 한다.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여기에 대입해 보자.

피톤치드와 청정공기, 힐링 및 치유, 완만한 등산로가 있어 남녀 노소 누구나 산림욕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령산, 트래킹족들의 성지가 된 장성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천년고찰 백양사, 매년 백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황룡강 꽃길 등 하나 하나 뜯어보면 너무나 좋은 문화·관광·자연 유산이다.

거기에 축령산과 장성호, 황룡강 꽃길, 백양사는 늘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왜 우리군은 이탈리아 도시들처럼 관광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일까?

로마와 피렌체, 볼로냐는 어떻게 관광 도시가 되었을까? 어떻게 소득화 했을까? 도시 전체가 역사와 문화 유산이라서.....

본 의원은 이탈리아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현재 우리군은 절대 이렇게 따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주요 관광지에서조차 우리군은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수 동안 소득 창출을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 보았다.

첫째, 이탈리아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대부분 입장료를 받고 있다.

황룡강 꽃길이 조성된 지 10여년이 되어가고 있어 많은 홍보가 없어도 봄, 가을에는 수백만송이의 꽃을 보기 위한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방문객에 비해 군민들이 느끼는 소득 창출은 낮은 편이다. 이제는 축제기간만이라도 통제선을 만들어 입장료를 받거나 장성호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관광소득 창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 이탈리아의 주요 관광지에는 쇼핑센터, 음식점, 카페, 기념품 가게, 길거리 자판 등 다양한 상점들이 바로 앞에 있어 누구나 걸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소득으로 바로 직결되는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우리군은 주요 관광지 옆에 걸어서 물건을 사거나 먹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황룡강 꽃길 도로 건너편, 장성호 진입로 인근, 축령산 주차장 주변

에 다양한 상점들이 군락을 이뤄 들어설 수 있도록 짧은 시일안에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 그 도시만의 특산품과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군에서는 5대 맛거리 조성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군에 와서는 꼭 먹어야 하는 음식, 구매해야 하는 상품 발굴에 힘써야 한다. 음식은 맛거리 조성 시 더불어 고민해야 한다.

음식은 특이한 것만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일반 음식에 우리군 특산품을 더한 예를 들어 사과 소스, 포도, 복분자 등 우리군에서 나는 재료를 대중적 음식에 추가하여 만들어 이름만 장성화 하면 된다. 파스타 종류가 여럿이지만 볼로냐에서 만들어 볼로냐 파스타라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 마무리

‘어차피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는 관광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군도 이를 위해 관광지 명품화에 힘쓰고 있다. 장성호, 장성호 관광지, 황룡강 꽃길, 필암서원, 백양사 등에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좋은 방향과 필요한 투자라고 동감하면서 관광 소득 창출이 수반되는 관광지로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크다.

본 의원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을 다녀오면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군의 관광 소득 먹거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오원석 부의장]

I. 들어가는 말

이번 의원 연수를 떠나기 전 본 의원은 사전 안내자료를 보면서 관광대국 이탈리아에서 ‘우리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개라도 보고 느끼고 와야겠다’라는 굳은 맘을 먹었다. 이러한 생각 때문인지 방문지별로 우리군 현 상황과 비교해서 바라보는 좋은 습관이 조금은 형성된 것 같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연수가 되지 않았나 싶다.

II. 본론

그러면 본 의원이 우리군 상황과 비교해서 바라보고 느낀 점을 생각나는대로 가감없이 적어보려 한다.

○ 시뇨리아 광장(로지아 데이 란치) - 장성호 관광지 내 조각공원

피렌체 시내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피렌체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인 시뇨리아 광장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다비드상 등 수많은 조각상과 예술 작품들이 전시된 야외 미술관 같은 곳이라는 여겨졌다.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등 고대와 르네상스 시대 거장들의 예술 작품들을 편하게 쉬면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또한, 15세기 정치적인 사건으로 처형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처형된 지점을 표시해 놓은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난 장성호 관광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장성호 관광지내 조각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서·화·어록을 주제로 한 국내 유수의 조각가들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본 의원 생각에 이곳은 야외 미술관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 하지만 이십년이 넘도록 홍보가 미비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근 광주 거주민은 물론 장성군민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 군에서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원더랜드 프로젝트사업을 추진중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조각 공원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조각 공원을 확대하고 장성의 예술품 등을 전시하는 특색있는 전시관을 짓고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추가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돌로미티 - 장성호 수변길

파도바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이탈리아의 알프스 돌로미티가 있는 코르티나 담페초로 이동하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부터 인상적이었다. 인간의 편리를 최소화하여 자연을 최대한 살리려는 교육지책인 것 같았다. 돌로미티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친환경 인프라를 통해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연자원을 관광화하고 있다. 케일블카를 통해 고지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 경관 감상을 관광화하였으며 계절별로 트래킹, 스키, 산악자전거 등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에 따른 관광 수입(숙박비 평소 1박에 30만원대, 겨울철 성수기 100만원대 이상, 식당 등 상가에 관광객이 북적)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본의원은 여기서 우리군의 장성호가 떠올랐다. 사계절 내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트래킹의 성지가 된 수변길,

바다의 감흥을 주는 출렁길, 아늑함을 주는 숲속길, 향후 횡단 출렁다리까지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 소득은 방문인원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면 먼저 현재 장성호 상황에서 입장료를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해 소득 창출하는 방안은 없을까?

대부분 장성호 방문객들은 자가용을 타고 온다. 주말에는 넓은 주차장이 꽉 차는데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장성군민을 제외한 외지인에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본다. 여기에 더해 횡단 출렁다리가 완성되면 횡단 출렁다리 통행료 부과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장성호를 둘러싸고 있는 임도를 활용한 산악 자전거길 발굴, 야구장, 축구장 등 스포츠 인프라 건설에 따른 마케팅, 조정 체험장 등 수상 관광 개발 등 방문객의 발길을 끊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발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며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미락단지 등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필수적이어야 할 것이다.

○ 밀라노 도매시장 - 농협 복합물류센터

이탈리아 최대 과일, 채소 도매시장인 밀라노 도매센터는 그냥 보기에는 광주 풍암지구 농산물 도매시장과 별 다르게 없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했다. 도매시장이라 토요일만 일반주민의 구매가 가능한데 이탈리아 정책상 필수 소비재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가격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일반 물가에 비해 현저히 싸게 느껴졌다. 2만원어치의 자두를 사서 우리 연수단 10명이 2~3일간 먹을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본의원은 여기서 올해 개장한 농협 복합물류센터가 생각이 난 것은 왜일까? 법적, 제도적 검토 등 여러 가지를 해 봐야겠지만 느낀 점을

적어보려 한다. 장성물류센터는 호남권 농협 물류기지이지만 그 만큼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고 본다. 코스트코처럼 대형 도매몰을 유치한다면 많은 유동인구를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올리고 군민들은 소비재를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 모든 관광지에 스토리텔링 적용 - 기록화

저는 이번 연수에서 이탈리아 도시마다 역사를 가진 스토리텔링에 집중했습니다. 로마, 피렌체, 볼로냐 각 도시의 각 건축물, 유적, 예술품마다 탄생배경부터 현재까지 유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관광객들에게 스토리로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판테온신전, 콜로세움, 볼로냐의 아무리 길어도 끝나지 않는 포르티코(회랑), 피렌체의 시뇨리아 광장, 밀라노의 대성당 등 모든 곳이 하나 하나 스토리가 오롯이 담겨 있어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더 알고 싶다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기록화 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황룡강 꽃길, 장성호, 장성호관광지, 백양사, 축령산, 필암서원 등 주요 문화유적과 관광지가 탄생배경부터 현재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기록화되어 있는지 문득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이 어려워지고 그럴듯해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문화유산, 관광지의 기록화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입니다.

III. 마무리

이번 연수는 본 의원에게 사물을 보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지고 깊게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 이후 의정 활동과 집행부에 많은 정책제언에도 더욱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차상현 의원]

I. 서 론

제9대 장성군의회 의원으로써, 벌써 2년이라는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장성군민들의 더 나은 행복과 장성군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비전 마련을 위해 고심해 왔다.

이번 공무 국외출장은 이탈리아 주요 도시의 문화관광,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 분야 등에 대한 우수사례 시찰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사전에 방문도시의 현황 등에 대한 자료수집으로 내실있는 국외출장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II. 본 론

- 문화유산 보존 및 현대적 활용정책 마련 (바티칸, 콜로세움, 돌로미티 등)

이탈리아는 피렌체 두오모 성당,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 콜로세움 등 고대유물부터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물과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문화자산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로마 콜로세움



▲ 돌로미티

우리 장성군도 문화적, 역사적 자연유산의 보존방식 마련과 물론 우리 지역 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육성 및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필암서원을 비롯하여 고산서원, 봉암서원, 황룡 전적지, 봉정사 석조여래입상 등 역사적 사건을 지역사회와 관광자원으로 연결시켜 문화적인 가치를 보존하되, 기존 문화재의 현대적인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정책모델 발굴 (볼로냐 현대미술관 등)



▲ 볼로냐 현대미술관(외부)



▲ 볼로냐 현대미술관(내부)

이탈리아의 도시재생하면 떠오르는 곳이 볼로냐이다. 볼로냐는 건축물을 보수하는 방식이 아닌 최대한 건축물을 보존하여 새로운 특징을 부여하는 리모델링 방식을 택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창고, 공장, 폐교를 개조

하여 미술관, 문화센터, 카페 등으로 탈바꿈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도시재생계획이 중세시대 도시의 모습 그대로 살아 숨쉬는 현대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했다.

III. 결 론(시사점)

□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육성방안 마련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국가등록·지정유산은 533건으로 전국 3위, 시도 등록지정 유산은 811건으로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이 통계는 전남의 문화자원이 그만큼 풍부함을 방증하며, 장성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필암서원을 비롯한 9개의 서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와 전주 등의 대도시에서 1시간 내외로 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거리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장성군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콘텐츠 산업 연계 등 시대변화와 미래가치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방안 모색

장성군은 지리적인 여건과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한 도시재생 리노베이션을 통해 낡은 주택과 공장, 창고, 폐교 등을 개조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 과정에는 행정이 주도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3월 정부는 ‘도시공간, 거주, 품격’ 3대 도시재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이 기존의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지역특화 재생과 도시재생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과거에 도시 재생이 거점시설 조성 중심이었다면 도심 내 노후된 시설을 문화예술 대표 공간으로 재생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장성군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면적인 도시 개발보다는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과 역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존과 개발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도시의 경쟁력 제고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서춘경 의원]

I. 들어가면서

이번 공무 국외출장을 준비하며, 본의원이 장성군의회원이 되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의정활동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봤다. 그것은 우리군의 대표산업인 농업, 바로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다.

매년 실시하는 공무 국외출장이지만 이번만큼은 국외 선진기술의 습득, 농업에 대한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선진 농업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선진 농업국가 벤치마킹 : 피렌체 농업학교

이탈리아 피렌체에 위치한 농업학교(Al Istituto Tecnico Agrario Statale All' Att Firenze)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농업기술 연구 및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제품가공실험실, 작물배양, 토양관리, 농업경영 등 농업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이탈리아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또한,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은 농업, 임업 제품의 생산, 마케팅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여 농촌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농업기업가,

농업 생산 전문기술자, 농업분야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전문가, 품질 인증 전문가로 양성된다.



피렌체 농업학교 (AI Istituto Tecnico Agrario Statale All'Att Firenze)

피렌체의 농업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정부의 농업정책에 맞추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성군도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미래농업대학, 귀농학교, 농산물 가공 및 창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 모든 과정은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본의원은 최근 전라남도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의 장성군 선정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지역 농업 인프라를 활용한 영농 복합 교육시설 건립은 공동생활용 체류시설, 영농교육관, 스마트팜 시설이 마련되어 귀농·귀촌인들을 농업정책 마련 및 인구유입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농업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그에 따른 노동력도 감소하여 농업소득 또한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촌 빈곤에 따른 소득보장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2. 유럽 농산물 유통 현황 조사 : 이태리 농산물 도매센터

이탈리아 밀라노 도매시장(Ortomercato Di milano)은 1965년 최초 설립되어 총 면적 80만㎡로 취급물량은 청과물, 수산물, 육류, 가금류, 화훼류 등 연간 100만톤을 거래하며, 연매출 25억유로에 달한다.

이곳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2040년까지 밀라노 시의 위탁을 받아 쏘제미(So.ge.Mi.)라는 회사가 밀라노의 모든 시장을 운영 중이며, 거래방식은 경매제가 아닌 정가·수의매매로 가격을 결정하여 농산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는 시장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계약재배 등의 형태로 안정적인 출하를 함으로써, 가격변동으로 인한 생산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이태리 농산물 도매센터 (Ortomercato Di milano)

도매시장을 둘러보며, 인상깊었던 점은 농산물을 팔레트나 농산물 포장을 대부분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고, 일부는 나무박스로 사용한다는 점과 앞서 말한 농산물 경매방식이었는데 유럽의 경우 산림자원 활용도가 높고, 플라스틱의 경우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데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농산물 거래안정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었다.

Ⅲ. 결 론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이탈리아 농업의 현황과 우리군의 미래농업의 방향에 대해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해봤다. 그 시작은 생산부터 유통, 판매, 서비스 등 6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부터 일 것이다. 우리군은 농업전문가 양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 농업정책에 비하면 부족한 형편이다. 6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을 위해 토양 생태계 재생, 저탄소 농법을 통한 생산비 절감,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도심 지역민들의 구매 확대를 위한 시장 현대화,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출하시스템 개선 등으로 농업의 질적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장성군의 미래는 농업이다. 농촌인구 고령화, 잦은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으로 농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식량위기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계획수립, 농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을 통해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지만 원격근무, 온라인교육, 온라인 거래를 통한 판매량 증가 등으로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좁아지고 있다. 본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선진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청사진을 마련하게 됐고, 이를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폭제로 활용하겠다고 다짐하며 연수보고를 마친다.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김연수 의원]

I. 서론

우리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필암서원과 천년고찰 백양사와 같은 역사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문화유산들은 ‘장성’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키워드이며, 지역 관광 자원으로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도 어느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애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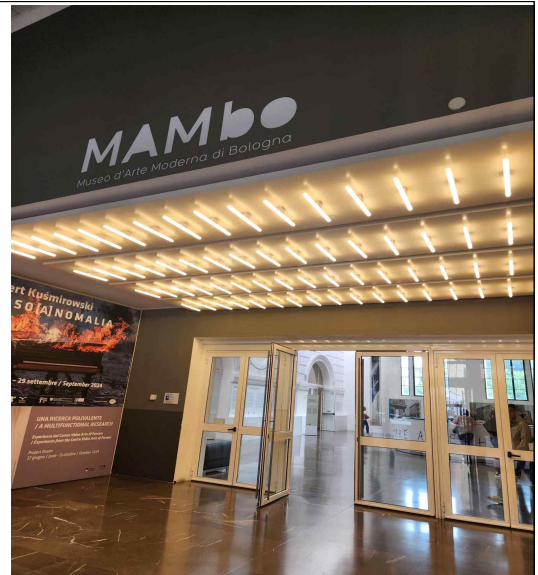
이탈리아는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추가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번 연수는 그들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학습하고 이를 장성군에 적용할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본론

1. 이탈리아 도시재생 모델 학습

이탈리아의 도시재생은 역사적 자산 보존과 지역 사회 활성화를 결합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밀라노 포르타 누오바 프로젝트는 오래된 산업 지역을 현대적 도시공간으로 재생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이 프로젝트는 녹지 공간, 문화적 공간, 상업 지역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볼로냐 현대 미술관(MAMbo)은 과거의 산업 시설을 문화예술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사례로, 지역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을 창출하였다. 이는 장성군이 구도심이나 낙후된 지역을 예술과 문화 중심지로 재생하는 데 유용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장성군은 필암서원과 백양사 등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을 도시재생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 처럼 역사적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장성군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필암서원과 백양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천년고찰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를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 탐방로 조성 및 문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본 사례처럼, 장성군은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3. 공간 활용과 주민 참여

이탈리아 도시재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공간 활용과 주민 참여이다. 이탈리아는 낡고 방치된 지역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였다. 특히, 주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장성군 역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 재생된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이 요구된다.

4. 장성군 도시재생의 과제와 적용 방안

장성군의 도시재생은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 생활의 질 향상,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의 도시재생 모델을 참고하여 문화유산 중심의 재생 모델, 주민 참여와 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마무리

이탈리아의 도시재생 모델은 문화유산 보존, 문화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한 공간 활용, 그리고 주민 참여라는 중요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 군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볼로냐 현대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문화 활성화와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은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 군이 보유한 필암서원과 백양사 같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문화를 체험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공간 활용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을 통해 장성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최미화 의원]

I. 서론

이번 연수는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인 로마, 밀라노, 피렌체 등에서 세계 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광 자원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이탈리아가 G7 회원국으로서 문화관광이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장성군의 문화관광 발전 및 경제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II. 로마

로마의 주요 세계유산인 콜로세움과 바티칸 시국은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입장료 수익 외에도 주변 상업 지구와의 연계가 활발한 것으로 보였다. 장성군의 필암서원과 백양사 같은 문화유산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를 극대화할 방안으로 관광 루트 개발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II. 코르티나담페초

돌로미티 산맥은 이탈리아 북부의 알프스 산맥의 일부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독특한 석회암 지형과 절경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었다. 코르티나담페초는 돌로미티가 있는 산악

리조트 도시이며, 동계 스포츠와 하이킹, 트레킹을 즐기기 위한 이상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고 2026년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다. 비록 지형이 험준하지만, 여러 개의 케이블카 루트가 있어 고지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자연 경관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장성군의 내장산과 축령산도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 관광을 개발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자연환경에 가까이 다가가 감상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V. 밀라노

밀라노는 경제 중심지로서 도시의 현대성과 역사적 자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도시다. 연수기간 방문한 농수산물 도매센터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 농업과 도시 경제를 연결하고 있었다.

장성군의 농협 복합물류센터와 같은 시설도 지역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허브로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한다.

또한, 농업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외부 방문객들에게 지역 농업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V. 볼로냐

볼로냐의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는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관광 요소를 결합한 성공 사례였다. 현대 미술관으로 바뀐 90년전 체빵 공장은 산업 유산을 문화적으로 재활용한 훌륭한 예이다.

장성군도 역사적 건물이나 유휴 공간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문화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예,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진출처 : <https://blog.naver.com/phjung0510/222956099807>]

VI. 결론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 자연, 예술을 융합한 관광 모델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장성군도 필암서원과 백양사 같은 역사적 자산과 내장산, 축령산 등의 자연 환경, 그리고 농업 자원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나철원 의원] = 상임위 보고 =

안녕하십니까?

2024년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자 나철원 의원입니다.

차상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 장성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과 올해 해외연수를 다니면서 느꼈던 의원 연수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원들의 국외 연수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외유성 출장’이라거나 ‘관광지 위주 연수’라는 인식을 바꾸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해외 연수를 갔으면 최대한 많이 배우고 느끼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군정에 반영할 발전적인 정책이나 아이디어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와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 또한 적극 동감하고 이해하며 의원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박 8일의 짧은 일정, 방문 기관과의 원활한 접촉의 어려움, 짧은 기간에 대비되는 장시간 소요되는 도시 간 이동, 연수업체의 비전문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실질적인 연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국민권의 위에서도 의원 연수 전반을 재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최소 한달에서 3개월 이상의 공무 출장의 경우 연수라는 용어를 쓰고 단기간의 경우는 연수보다는 견학으로 구분하고 현재 지자체 의회에서 단기로 운영하는 연수를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시각을 달리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것을 배우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느끼고 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이탈리아 연수를 가벼운 견학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허투루 가벼이 다녀오자는 생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사전에 다녀올 연수기관과 장소에 대해 상당량의 자료를 만들어 공부하고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배우고 느껴야 하는지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계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민분들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돌아왔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이 쭉 다 빠져도 콩나물은 어느새 훌쩍 자라듯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번 연수에서 몸소 체험하고 느낀 부분들은 의정 활동하는데 새로운 자양분이 될 것이며 이는 군정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서설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연수기간 동안 보고 느낀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문명의 발상지로 현재 6천만명의 인구와 카톨릭, 문화, 예술, 음악, 요리 등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르네상스 시기 많은 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현재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패션, 자동차, 음식, 와인 등의 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며 특히 로마, 피렌체, 볼로냐, 베니스, 돌로미티 등 관광산업의 메카라 해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이탈리아 연수를 관광성 외유라 비판도 받고 있지만 본 의원은 꼭 한번은 다녀와야 할 곳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는 먼저 무수히 셀 수 없는 이탈리아의 문화·관광 유산으로 주요 도시마다 특색있는 대성당, 이천년이 넘게 남아 있는 포로 로마노와 콜로세움, 판테온신전, 밀라노 대성당과 바티칸 시국, 오랜 역사와 함께 남아 있는 예술 작품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생각에 정말 부러웠습니다.

피렌체, 밀라노, 로마 주요 시가지를 걸어 다닐때는 정말이지 사람에 치여 다닌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보는 것 걷는길 하나 하나가 소중한 문화이고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이리 몰려드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만 관광시대를 꿈꾸는 우리군에 이보다도 좋은 본보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연코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극했고 우리군의 황룡강 꽃길, 축령산, 장성호, 백양사, 필암서원 등 관광지와 유적지를 활용한 소득 창출 방안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가 어떻게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저만의 해석 방식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군에 적용할 만한 점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관 방문은 타 의원님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돌(대리석) 문화, 문화와 예술, 자연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힘, 지방정부의 의지, 이탈리아인의 특유의 민족성, 스토리텔링까지.....

돌 문화, 건축양식을 이리 표현해도 되나 싶지만, 수천년이 지나도 원형을 간직하는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성당과 건물, 역사 유적, 예술작품들은 우리의 목조 문화와 달리 현재는 물론 후대에까지 이탈리아 먹거리로 온전히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와 예술, 자연경관을 지키고자 하는 힘에 주목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운동인 르네상스의 발원지 피렌체, 그 중심에서 수많은 인물을 키워낸 메디치 가문....

위대한 인물은 역사를 이끌지만, 위대한 가문은 역사를 만든다는 말을 만들어낸 메디치 가문은 300년에 걸쳐 르네상스 예술에 이바지하였을 뿐 아니라 메디치가의 마지막 후손 안나 마리아는 모든 예술작품과 유물들을 남기면서 단 하나도 피렌체 밖으로 반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여 오늘날 피렌체가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도 이 조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 유산을 지켜나가는 것도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파도바에서 이탈리아의 알프스 돌로미티로 가는 길은 좁디 좁은 편도 1차선을 묵묵히 다니는 걸 보면서, 26년에는 동계올림픽도 열리는데...., 우리나라였다면 진즉에 4차선 확장에 터널까지 뚫었을텐데...., 자연을 최소한으로 훼손하고 보존하겠다는 이탈리아인들의 의지가 느껴졌다고나 할까?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게 자연 경관을 지키는 것이란걸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의지입니다.

볼로냐의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는 포르티코(아케이드, 회랑)를 걸으며 상인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허락되었던 건축 양식이 지금은 볼로냐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결한 볼로냐 정부의 일관성(총 길이 62km), 절대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명물을 끈질기게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피렌체 역사 지구는 어느 한 가구도 함부로 증·개축을 할 수 없다. 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 하지만 피렌체 내 관광 수입을 오롯이 피렌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시민 모두가 감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방정부의 일관된 정책들로 인해 피렌체, 로마, 베니스 등 수 천년 또는 수백년 전 계획된 도시가 지금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수백년전 과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예술가들이 걸었던 거리를 현재를 걷는 저 자신과 오버랩되어 이상야릇한 감정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한 것은 **이탈리아인 특유의 기질**에 주목했습니다.

동행 가이드의 설명과 연수를 다니면서 느낀점을 토대로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탈리아인들의 민족성을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문화유산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는 국민들 대부분이 대대로 가업을 이어오면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해 가죽제품, 유리공예, 올리브 가공 등 지방의 가문마다 그대로 이어지고 각 분야가 발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전통을 중시하고 옛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고방식이 람보르기니, 구찌, 프라다, 베네통 등 명품 브랜드를 탄생하게 된 배경일 것입니다.

도시간 이동시 차창으로 보이는 농촌의 들녘에는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농업과 농기구가 발전한 나라인데 말입니다. 특이해서 이유를 알아보니 이탈리아인들의 생태학적인 관념 및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제철에 나오는 식물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여 식물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며 필요한 전기는 프랑스에서 수입해 쓰고 있다. 전기가 풍족하지 않아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평소 전기든 물이든 평평 쓸수 있는 우리와는 정말 다른 부분입니다. 이는 자연을 사랑하고 먼 미래와 후손들을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이탈리아인들의 특성으로 가히 본받을 만한 것

이며 이러한 점이 고대와 중세를 이어 현재를 살아가는 이탈리아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건축 문화, 역사, 민족성이 달라 현재의 우리 군 문화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스토리텔링 기법은 우리군에 바로 적용하여 운영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은 우리군 관광 활성화에 적용하여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문화·관광자원을 여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피톤치드와 청정공기, 힐링 및 치유, 완만한 등산로가 있어 남녀 노소 누구나 산림욕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령산, 트래킹족들의 성지가 된 장성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천년고찰 백양사, 매년 백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황룡강 꽃길 등 하나 하나 뜯어보면 너무나 좋은 문화·관광·자연 유산입니다.

거기에 축령산과 장성호, 황룡강 꽃길, 백양사는 늘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왜 우리군은 이탈리아 도시들처럼 관광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일까? 로마와 피렌체, 볼로냐는 관광을 어떻게 소득화했을까?

본 의원은 이탈리아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현재 우리군은 절대 이렇게 따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주요 관광지에서조차 우리군은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을까?

관광 소득 창출을 위해 무엇이 다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부분이 이번 연수의 최대 성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대부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군은 거의 모든 관광지가 무료 입장이며 장성호가 지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입장료와 동일 금액의 장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황룡강 꽃길이 조성된 지 10여년이 되어가고 있어 많은 홍보가 없어도 봄, 가을에는 수백만송이의 꽃을 보기 위한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에 비해 군민들이 느끼는 소득 창출은 낮은 편으로 이제는 축제기간만이라도 통제선을 만들어 입장료를 받거나 장성호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관광소득 창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탈리아의 주요 관광지에는 쇼핑센터, 음식점, 카페, 기념품 가게, 길거리 자판 등 다양한 상점들이 바로 앞에 있어 누구나 걸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소득으로 바로 직결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주요 관광지 옆에 걸어서 물건을 사거나 먹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황룡강 꽃길 도로 건너편, 장성호 진입로 인근, 축령산 주차장 주변에 다양한 상점들이 군락을 이뤄 들어설 수 있도록 짧은 시일안에는 어렵겠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상점들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도시만의 특산품과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군에서는 5대 맛거리 조성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군에 와서는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을 개발하고, 구매해야 하는 상품 발굴에 힘써야 합니다. 음식은 맛거리 조성 시 더불어 고민해야 하는 부분으로 특이한 음식을 개발하는게 아니라 일반음식에 우리군 특산품을 첨가한, 예를 들어 사과 소스, 샤인머스켓, 복분자 등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대중적 음식에 추가하여 이름만 장성화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스타 종류가 여럿이지만 볼로냐에서 레시피를 약간 바꿔 만들어 볼로냐 파스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관광지만의 스토리텔링에 집중했습니다.

로마, 피렌체, 볼로냐 등 각 도시의 각 건축물, 유적, 예술품마다 탄생 배경부터 현재까지 유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관광객들에게 스토리로 만들어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판테온신전, 콜로세움, 볼로냐의 아무리 걸어도 끝나지 않는 포르티코(회랑), 피렌체의 시뇨리아 광장, 밀라노의 대성당 등 모든 곳이 하나 하나 스토리가 오롯이 담겨 있어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더 알고 싶다는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스토리텔링의 기반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건축물, 유적, 도시 역사 등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야만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기록 관리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관광지별로 마음을 끌어내는 스토리텔링 작업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성군의 미래 먹거리는 관광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군도 이를 위해 관광지 명품화에 힘쓰고 있으며, 장성호, 장성호 관광지, 황룡강 꽃길, 필암서원, 백양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좋은 방향과 필요한 투자라고 동감합니다. 하지만 소득 창출이 수반되지 않는 투자는 추후 유지비 부담만 늘어 가게 되고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 개발은 소득 창출을 반드시 수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이탈리아 연수를 관광성 외유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을 다녀오면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관광 소득 먹거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후로는 짧은 연수 기간을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 여행 길잡이, 분야별 전문가 등 충실한 안내자가 동행한다면 더욱더 알찬 연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